

6월 금융시장 브리프

2025. 6. 5.

[5월 국내 금융시장 동향]

- 5월중 금융시장은 대선 기대감과 대미 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원화와 주가가 반등하였고, 채권금리는 미 신용등급 강등과 상호관세 무효 결정의 영향으로 상승

[최근 현안: 과거 대선 직후 금융주 수익률 분석]

- **(KOSPI 수익률)** 과거 5번 대선 투표일 이후 KOSPI의 1개월 수익률은 당시 매크로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 국내 증시에 수출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KOSPI와 글로벌 주가의 동조화 경향
- **(금융주 수익률)** 금융주는 16~17대에 KOSPI와 동반 하락했으나, 대외 매크로 충격이 크지 않았던 18~20대에는 금융업 주가상승률(1개월 평균 6.1%)이 KOSPI(2.1%)를 4.0%p 초과
 - * 18대: LTV·DTI 완화 기대로 은행주가 선전(1개월 5.3%)
 - * 19대: 증권업 공매도 제한, 증시 부양책이 주목받아 증권주가 높은 수익률(13.6%) 시현
 - * 20대: 보험업 IFRS17 도입, 금리 인상 국면으로 보험주가 20.1% 급등
- 금융업 실적에 미치는 악재(성장률 둔화, 금리 하락, 고환율 지속)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대선 이후에는 내수 부양책, 건설투자 활성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대감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

[6월 금융시장 전망]

- 미 연준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재개 위험을 감안하여 6.17~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에서 유지할 전망
- 국고채 금리는 트럼프 관세정책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악화 우려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신정부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보합권을 예상(국고채 3년물: 5.30일 2.35% → 6월말F 2.35%)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DXY) 약세 흐름, 한·미 통상 협상 논의, 신정부 출범 기대 등을 반영하여 내림세를 보일 전망(원달러: 5.30일 1,383원 → 6월말F 1,365원)
- 국내 증시는 대선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의 안정화와 신정부 정책수혜, 반도체 가격상승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KOSPI: 5.30일 2,698 → 6월말F 2,900)

작성자: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종 센터장(02-2173-0568), 서보익 센터장(02-2173-0532)
허지수 책임연구원(02-2173-0556), 김민서 인턴(02-2173-0566)



목 차



I.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참고 1: 5.7일 미 연준 FOMC에 대한 평가]	2
[참고 2: 5.29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	3
II. 최근 금융시장 주요 현안	4
과거 대선 직후 금융주 수익률 분석	4
III. 5월 금융시장 전망	8
[붙임 1]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11
[붙임 2]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12

I. 최근 금융시장 동향

■ 5월중 금융시장은 미국 관세조치 완화와 국내 대선 기대로 원화와 주가가 반등하였고, 채권금리는 미 신용등급 강등과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의 영향으로 상승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로 2.37%까지 오른 뒤 국내 경제 둔화 우려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을 소화하며 2.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5.2일 2.28% → 5.30일 2.35%)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410원대 중반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이후 원화 강세 기대감이 제기되고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1,360원대까지 하락(5.2일 1,402원 → 5.30일 1,383원)
- KOSPI는 상호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중국 90일 유예, EU 대상 50% 관세 7.9일까지 연기), 원달러 환율 하락 및 외국인 순매수 전환, 대선 기대감 등으로 2,700pt에 근접(5.2일 2,559 → 5.30일 2,698pt)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참고 1: 5.7일 미 연준 FOMC에 대한 평가]

- **(연설 주요내용) 미 연준은 5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상단 4.50%)하고,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정책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강조**
 - **(물가 고용)** 물가 상승 고용 악화 리스크가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판단
 - **(경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 -0.3%, 연율)이 수입 증가에 기인했음을 언급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평가
 - * 성명서 내 경제상황 평가 부분을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에서 → '순수출의 변동이 지표에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으로 변경
 - **(향후 정책방향)** 추후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추가 정책조정의 폭과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유지
 -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명확한 실물지표 악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관망(wait and see)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 **(금융시장 반응)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하락, 달러화 강세, 주가 강세를 시현**
 - FOMC 직후 발간된 7개 IB 보고서에서는 차기 FOMC(6.18일)에서 동결 전망이 우세(6개)

[주요 IB 미 연준 금리 경로 전망 (5.7일 FOMC 직후 보고서 기준)]

기관	평가 또는 전망	6월 FOMC	25년 말 금리(%)
Citi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물가와 달러, 노동시장은 냉각이 빠르게 실물지표에 반영되며, 연준이 연내 1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	4.25	3.25
골드만 삭스	연준이 실물지표를 중시함에 따라 19년과 같은 선제적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동지표가 7월부터 악화되면서 7, 9, 10월에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	4.50	3.75
JP Morgan	미 연준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한 것으로 평가하고, 여름까지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9월에 첫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	4.50	3.75
노무라	하반기 실물지표 영향과 함께 25년에는 12월에 한 차례 인하하고, 26년에는 두 차례(1, 3월) 인하하며 최종금리 3.7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4.50	4.25
모건 스탠리	기본 시나리오(55%)하에서는 25년 동결 후 26년에 2.75%까지 인하할 것으로 보이며, 악한 침체 시나리오(30%)에서는 26년 최종금리 1.7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4.50	4.50
BNP Paribas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 확대가 연준의 동결 의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고, 뚜렷한 실물지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예상	4.50	4.50
BofA	인플레이션 상승의 파급효과, 견조한 미국 경제, 과도한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게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	4.50	4.50

자료: 7개 IB 각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참고 2: 5.29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내용]

■ (5월 통화정책 결정문의 주요 내용)

- 금번 회의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2.75% → 2.50%)
- 직전(25.4월) 금통위에 비해 25년 성장률 전망치(1.5% → 0.8%)를 큰 폭 하향조정
-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총재 기자회견 주요발언

① (금리인하 배경)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장 전망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

- 예상보다 더딘 내수(특히 건설투자) 회복세와 미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를 반영하여 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조정
 - * 건설 수출 민간소비가 각각 -0.4%p, -0.2%p, -0.15%p 만큼 성장률을 끌어내리는(-0.7%p) 요인으로 작용
 - * 이창용 총재는 25.2월 전망 당시 대미 흑자국 대상 5~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현재 교역국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대중 관세율도 2월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
 - *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인 민간소비와 건설경기는 각각 1분기와 하반기 저점을 지나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
- 성장경로에 상방리스크(주요국 협상 타결 가능성, 신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미 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등)와 하방리스크(통상 갈등 장기화,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등)가 모두 존재
 - * 1차 추경(13.8조원)은 금번 성장률 전망치(0.8%)에 반영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추경(시장 관측 20~30조원)은 미반영
 - * 이창용 총재는 미 법원(5.28일)의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으로 인해 국내 성장 전망이 낙관 시나리오(25년 성장률 0.1%p 개선 효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② (통화정책 전망)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에 대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동결, 4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 다만, 향후 경기 악화 시 추가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률이 회복(1.6%)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대 기준금리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
 - * 이창용 총재는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관련 질문에 대해 금리인하 속도나 환율에 대한 영향이 대내외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되어 국내 요인 중심의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힘

③ (환율 평가) 미국과 환율을 포함한 관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절상에 대한 투자자 기대심리가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원화는 지난 6개월간 정치 불확실성으로 펀더멘털 대비 크게 절하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정치요인 영향이 해소됨에 따라 최근에는 다른 통화에 비해 빠르게 절상

④ (금융안정) 유동성 공급이 투자 및 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II. 최근 현안: 과거 대선 직후 금융주 수익률 분석

(과거 대선 직후 금융주 수익률 분석 동향)

■ 과거 5번 대선 투표일 이후 KOSPI의 1개월 수익률은 당시 매크로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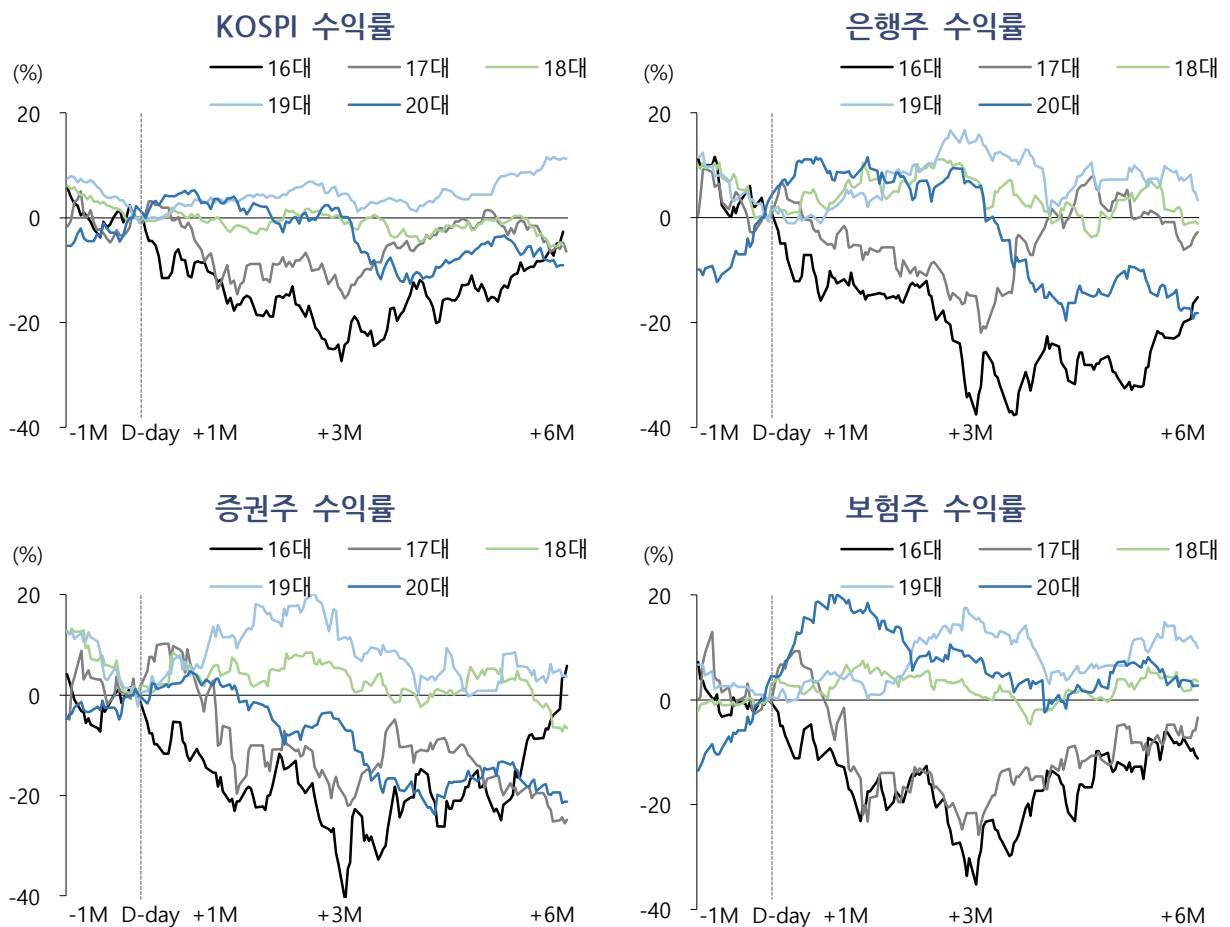
- * 16대(02.12월, 노무현 당선) 선거 이후 닷컴버블 붕괴로, 17대(07.12월, 이명박)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징후로 KOSPI가 각각 -10.3%, -6.8% 하락
- * 18대(12.12월 박근혜)는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보합
- * 19대(17.05월 문재인)는 탄핵정국 해소, 글로벌 경기 회복기로, 20대(22.03월 윤석열)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 등으로 KOSPI가 각각 +3.9%, +2.7% 상승
- 국내 증시에 수출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KOSPI와 글로벌 주가(특히 미국)가 동조화하는 경향

직전 5번 대선 후 1개월 주가수익률과 증시 여건 비교

항목(%)	16대 노무현(새천년민주) 02.12.19	17대 이명박(한나라) 07.12.19	18대 박근혜(새누리) 12.12.19	19대 문재인(더불어민주) 17.05.09	20대 윤석열(국민의힘) 22.03.09
코스피 수익률	-10.3 (하락)	-6.8 (하락)	-0.3 (보합)	+3.9 (상승)	+2.7 (상승)
금융업 수익률	-12.7	-0.3	+5.1	+5.1	+8.1
은행	-12.6	-1.6	+5.3	+3.8	+8.8
증권	-14.5	+2.9	+5.7	+13.6	+3.1
보험	-12.4	-1.5	+5.6	+3.9	+20.1
경제 상황	- 닷컴버블 붕괴 - 미 기업회계 스캔들 (엔론, 월드컴 등)	- 금융위기 본격화 - 연준 금리인하 시작 - 글로벌 증시 하락	- 저금리 유지 - 양적완화(QE3)	- 글로벌 경기 회복기 - 반도체 슈퍼사이클	- 금리인상 시작 - 공급망 차질 - 급격한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7.7('02) 3.1('03)	5.8('07) 3.0('08)	2.5('12) 3.2('13)	3.4('17) 3.2('18)	4.6('21) 2.7('22)
기준금리 (대선월)	인하기	인하기	유지	유지	인상기
한국	4.25	5.00	2.75	1.25	1.25
미국	1.25	4.25	0.25	1.00	0.50
원달러 환율 (대선월)	1,208	930	1,077	1,125	1,221
리스크 요인	- 북핵 지정학 리스크 - 이라크전쟁 우려	-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계감 증폭 - 환율 급등 조짐	- 미 재정절벽 이슈 - 유럽 재정위기 진정	- 탄핵 정치 혼란 해소 - 트럼프 정책 혼선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 에너지가격 급등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주는 16~17대에 KOSPI와 동반 하락했으나, 대외 매크로 충격이 크지 않았던 18~20대에는 금융주 수익률(1개월 평균 +6.1%)이 KOSPI(+2.1%)를 +4.0%p 초과
 - 이는 대외 충격이 크지 않을수록 신정부의 내수 부양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시장기대가 반영되었기 때문
 - * 추경, 고용 확대, 재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등
- 신정부의 정책 공약 내용에 따라 금융 업권별 주가 차별화도 관측
 - 18대: LTV·DTI 완화 기대로 은행주 선전(1개월 +5.3%)
 - 19대: 증권업 공매도 제한, 증시 부양책이 주목받아 증권주 +13.6% 상승
 - 20대: 보험업 IFRS17 도입, 금리 인상 국면으로 보험주 20.1% 급등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미국 상호관세 부과(4.2일) 이후 급락했던 글로벌(한국 포함) 증시는 관세 90일 유예조치(4.9일), 미중 협상(5.12일) 등에 힘입어 회복하는 모습
 - 관세 유연화, 트럼프 감세(미 하원통과) 등으로 미국 내 리세션 발생 가능성이 하락
 - * 골드만 삭스는 미중 협상(5.12일)을 반영하여 12개월 내 리세션 확률을 45%에서 35%로 하향 조정
 -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16대(닷컴버블 붕괴), 17대(금융위기 징후)와 같은 전세계 매크로 충격 국면은 일단 모면한 것으로 평가
 - * 글로벌 IB는 미중 협상(5.12일) 이후 25년말 S&P500 지수를 상향 조정

주요국 주가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OSPI와 금융업 주가에 대한 시사점)

- 트럼프 관세정책이 4.2일 상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 금번 대선(6.3일) 이후 KOSPI에는 18~20대와 유사한 긍정적 영향이 기대
 - 상호관세 영향 선반영(추후 한미 협상과정은 예의 주시), 정치 안정화(19대 탄핵 후 대선과 유사) 시기 기업실적 개선 기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회복, 역사적으로 낮은 valuation(PBR 0.9배) 등이 KOSPI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융주 상승률(1.1~5.30일 +24.7%)이 KOSPI(+12.4%)를 지속 상회할 여지도 충분
 - 금융업 실적에 미치는 악재(성장률 둔화, 금리 하락, 고환율 지속)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대선 이후에는 내수 부양책(예: 추경), 건설투자 활성화(예: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신정부 정책은 자본시장 선진화(배당소득 세제 혜택 등 증시 활성화), AI 벤처 강국, 소액주주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증권업이 상대적으로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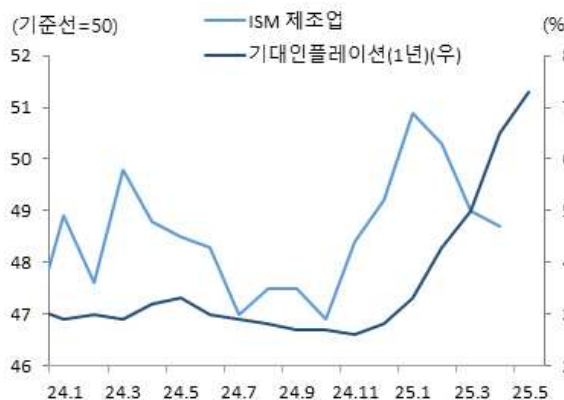
III. 6월 금융시장 전망

- 6월은 부진한 국내 경기흐름을 반영하여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는 달러 약세와 미국과의 환율 협상 기대로 강세를 보이며, 주가는 신정부 정책수혜 및 반도체 사이클 회복 기대로 상승 전망

[금리]

- 미 연준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재개 위험을 감안하여 6.17~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상단 4.50%)에서 유지할 전망
 - * ISM제조업(기준선=50): 25.1월 50.9 → 2월 50.3 → 3월 49.0 → 4월 48.7
 -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25.1월 3.3 → 2월 3.1 → 3월 2.8 → 4월 2.8
 - *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25.2월 4.3 → 3월 5.0 → 4월 6.5 → 5월 7.3
 - * 비농가고용 증감(만명): 25.1월 11.1 → 2월 10.2 → 3월 18.5 → 4월 17.7
 - *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는 미중 협상으로 관세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전월 대비 12.3p 오른 98.0(시장 예상치 87)을 기록
 - * CME FedWatch Tool(5.30일)은 미 연준이 올해 2차례(9·12월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반영
- 국고채 금리는 트럼프 관세정책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악화 우려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신정부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보합권을 예상
 - * JP모건은 5.29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직후 한은이 단기적으로는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로 인해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언급
 - *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기말, %): 25.4월 2.27 → 5월 2.35 → 6월F 2.35

미국 ISM 제조업지수, 기대인플레이션(1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DXY) 약세 흐름, 한·미 통상 협상 논의, 신정부 출범 기대 등을 반영하여 내림세를 보일 전망
 - 미중 관세협상(5.12일) 이후 지속된 주요 아시아 통화(엔화, 위안화, 대만달러 등)의 강세 흐름이 6월 중 발표될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미 차관보가 최초로 실무협의를 통해 환율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 이창용 총재는 5.29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로 국내요인보다 대외요인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고 미국 관세정책과 재정적자 규모,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리밸런싱 흐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
 - * 달러인덱스(기말) : 25.1월 108.4 → 2월 107.6 → 3월 104.2 → 4월 99.3 → 5월 99.2
 - * 원달러 환율 전망(기말, 원): 25.4월 1,427 → 5월 1,383 → 6월F 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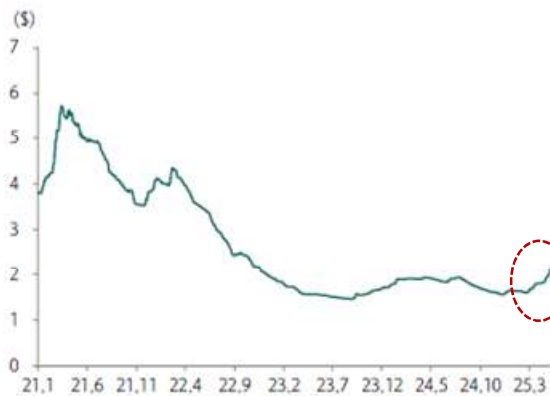
주: 4.2일=100으로 변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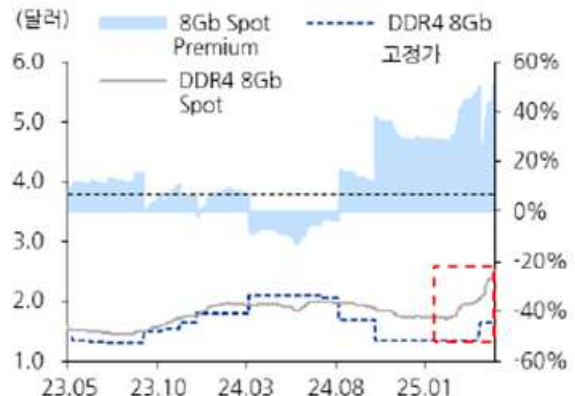
- 국내 증시는 대선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의 안정화와 신정부 정책수혜, 반도체 가격상승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글로벌 DRAM 시장은 제한된 공급 대비 AI 서버 및 그래픽향 수요 확대로 수급이 안정화되며, DRAM Spot 가격 반등으로 스팟 프리미엄(현물-고정)은 확대 중
 - * KOSPI 지수 전망(기말, pt): 25.4월 2,556 → 25.5월 2,698 → 6월F 2,900

반도체(DDR4_8G) 가격 추이



자료: DRAM Exchang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DRAM 스팟 프리미엄(현물-고정)



자료: DRAM Exchang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금융시장지표 전망

항목		단위	2022	2023	2024	25.5월	25.6월(F)	12월(F)
기준금리	미국	기말, %	4.50	5.50	4.50	4.50	4.50	3.75
	한국	기말, %	3.25	3.50	3.00	2.50	2.50	2.00
	유로존	기말, %	2.50	4.50	3.15	2.40	2.40	2.10
	일본 ¹⁾	기말, %	-0.10	-0.10	0.25	0.50	0.50	1.00
	중국 ²⁾	기말, %	4.30	4.20	3.60	3.50	3.50	3.10
국채금리	미국 10년	기말, %	3.87	3.88	4.53	4.40	4.30	3.90
	한국 3년	기말, %	3.72	3.15	2.60	2.35	2.35	2.00
	한국 10년	기말, %	3.73	3.18	2.86	2.79	2.65	2.10
	독일 10년	기말, %	2.57	2.02	2.37	2.50	2.45	2.20
	일본 10년	기말, %	0.42	0.61	1.10	1.50	1.55	1.60
환율	원/달러	기말, 원	1,265	1,288	1,472	1,383	1,365	1,400
	달러/유로	기말, 달러	1.071	1.104	1.035	1.135	1.135	1.160
	엔/달러	기말, 엔	131.1	141.0	157.2	144.0	143.0	140.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90	7.10	7.30	7.20	7.10	7.00
주가	S&P500	기말	3,840	4,770	5,882	5,912	6,050	6,300
	KOSPI	기말	2,236	2,655	2,399	2,698	2,900	3,000
	KOSDAQ	기말	679	866	678	734	770	850

주: 1) 상단 기준, 2) 5년물 LPR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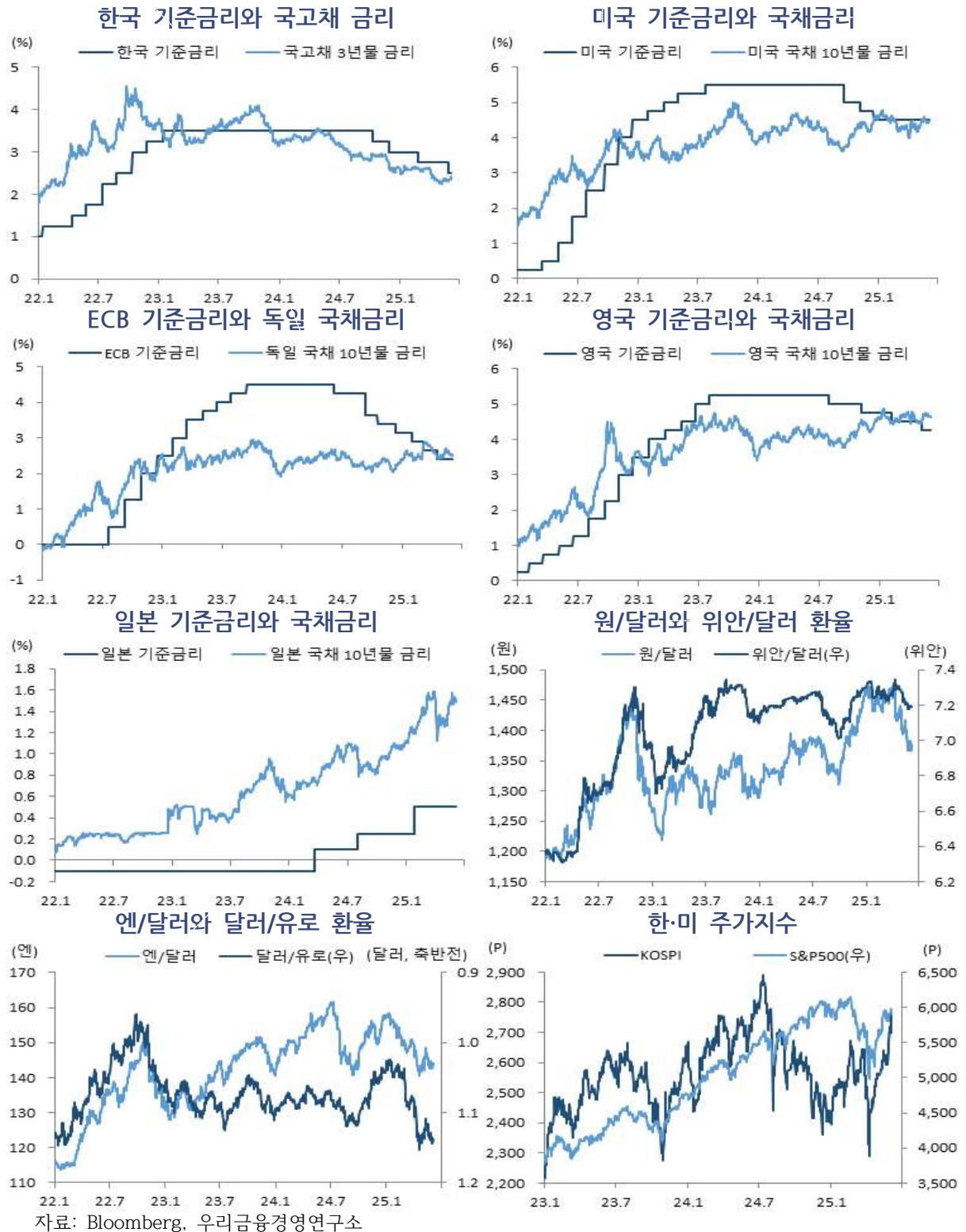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1 |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국가(지역)	항목	단위	24.3분기	4분기	25.1분기	25.1월	2월	3월	4월	5월
한국	GDP	전기비, %	0.1	0.1	-0.3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8	-0.4	0.4	-0.6	1.8	-1.0	-0.9	-
	서비스업생산	전기비, %	-0.2	0.6	0.3	-0.9	0.8	-0.1	-0.1	-
	광공업생산	전기비, %	-0.6	1.5	0.2	-2.9	0.7	2.9	-0.9	-
	제조업PMI	기준선=50	50.5	49.3	49.8	50.3	49.9	49.1	47.5	47.7
	수출	전년동기비, %	10.5	4.2	-2.2	-10.1	0.7	2.8	3.7	-
	취업자	전년동기비, 만명	14.6	5.1	15.5	13.5	13.6	19.3	19.4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1	1.6	2.1	2.2	2.0	2.1	2.1	1.9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2.0	1.8	2.0	2.0	1.9	2.1	2.4	2.4
	은행 가계대출	전기비, 조원	20.2	5.3	4.0	-0.5	3.2	1.3	5.1	-
미국	GDP	전기비연율, %	3.1	2.5	-0.2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4	1.8	0.4	-0.9	0.0	1.7	0.1	-
	개인소비지출	전기비, %	1.3	1.6	1.2	-0.1	0.4	0.7	0.2	-
	산업생산	전기비, %	-0.1	-0.3	1.3	0.1	0.9	-0.3	0.0	-
	ISM제조업	기준선=50	47.3	48.2	50.1	50.9	50.3	49.0	48.7	48.5
	ISM서비스업	기준선=50	52.5	54.1	52.4	52.8	53.5	50.8	51.6	-
	비농가고용	전기비, 만명	39.9	62.8	39.8	11.1	10.2	18.5	17.7	-
	실업률	%	4.2	4.1	4.1	4.0	4.1	4.2	4.2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7	2.7	2.7	3.0	2.8	2.4	2.3	-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3.3	3.3	3.1	3.3	3.1	2.8	2.8	-
유로존	GDP	전기비, %	0.4	0.2	0.3	-	-	-	-	-
	(독일)	전기비, %	0.1	-0.2	0.4	-	-	-	-	-
	(프랑스)	전기비, %	0.4	-0.1	0.1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0	0.5	0.1	0.0	0.2	-0.1	-	-
	산업생산	전기비, %	-0.6	-0.1	2.2	0.8	1.1	2.6	-	-
	수출	전년동기비, %	2.2	1.2	7.8	3.0	6.4	13.7	-	-
	제조업PMI	기준선=50	45.5	45.4	47.6	46.6	47.6	48.6	49.0	49.4
	실업률	%	6.3	6.2	6.3	6.3	6.3	6.3	6.2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2	2.2	2.3	2.5	2.3	2.2	2.2	1.9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2.8	2.7	2.5	2.7	2.5	2.4	2.7	-
영국	GDP	전기비, %	0.0	0.1	0.7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4	-0.8	1.3	1.2	0.7	0.0	1.3	-
	산업생산	전기비, %	-0.3	-0.5	1.1	-0.4	1.7	-0.7	-	-
	수출	전년동기비, %	-3.3	-12.1	-2.5	-5.8	-3.3	2.1	-	-
	제조업PMI	기준선=50	52.0	48.3	46.7	48.3	46.9	44.9	45.4	46.4
	실업률	%	4.3	4.4	0.0	4.4	4.5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0	2.5	2.8	3.0	2.8	2.6	3.5	-
일본	GDP	전기비, %	0.3	0.6	-0.2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8	0.2	1.5	1.2	0.4	-1.2	0.5	-
	산업생산	전기비, %	0.3	0.4	-0.3	-1.1	2.3	0.2	-0.9	-
	수출	전년동기비, %	4.5	3.2	7.4	7.3	11.4	4.0	2.0	-
	제조업PMI	기준선=50	49.5	49.3	48.7	48.7	49.0	48.4	48.7	49.4
	실업률	%	2.5	2.5	2.5	2.5	2.4	2.5	2.5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8	2.9	3.8	4.0	3.6	3.6	3.5	-
중국	GDP	전년동기비, %	4.8	5.0	5.4	-	-	-	-	-
	소매판매	전년동기비, %	2.7	3.8	3.6	0.0	3.0	4.9	4.1	-
	산업생산	전년동기비, %	5.0	5.6	6.8	0.0	5.9	7.7	6.1	-
	고정자산투자	연누적, 전년비, %	3.4	3.2	4.2	0.0	4.1	4.2	4.0	-
	수출	전년동기비, %	5.9	9.9	5.7	6.0	-3.0	12.3	8.2	-
	제조업PMI	기준선=50	49.4	50.2	49.9	49.1	50.2	50.5	49.0	49.5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0.5	0.2	-0.1	0.5	-0.7	-0.1	-0.1	-
글로벌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	-1.8	-2.6	-2.3	-2.3	-2.1	-2.5	-2.7	-
	교역량	전년동기비, %	3.0	2.9	4.5	4.1	3.0	6.6	-	-
	제조업PMI	기준선=50	49.3	49.7	50.3	50.1	50.6	50.3	49.8	49.6

자료: LSE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2 |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